

추석과 훈민정음

(역사 뉴스로 1448년 추석에 궁중에서 드린 추석제사를 취재하다.)

뉴스 진행자: 안녕하세요? 1448년 8월 15일 추석 저녁 KSNE 8시 역사 뉴스,
○○○입니다.

여러분 보름달 보셨습니까? 오늘은 조선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우리 덕담처럼 올해 추석은 말 그대로 풍년입니다. 오늘 낮에는 마을 곳곳에서 원놀이와 소먹이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절과 마을 공터에 아낙네들이 모여 강강술래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세자저하께서 돌아가신 어머님 소헌왕후를 모신 휘덕전에서 추석제를 올리셨습니다. 이 소식 △△△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기자입니다. 저는 창덕궁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인 오늘 창덕궁에서는 세자저하께서 휘덕전에서 추석제를 올리십니다. 세자저하를 모시고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자저하.

세자 이향: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 기자: 오늘 추석을 맞아 추석제를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휘덕전에서 올리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세자 이향: 2년 전 1446년 3월에 어머님이신 소헌왕후께서 승하하셨는데 그 때 어마마마의 신주를 휘덕전에 모셨지요. 같은 해 9월에 아바마마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셨는데 그 때 어마마마를 그리워하신 아바마마께서 제게 이제부터 추석제는 휘덕전에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1447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휘덕전에서 추석제를 올립니다.

△△△ 기자: 그렇군요. 그런데 전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지요?

세자 이향: 아바마마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며 눈이 많이 상하셔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공식적인 자리는 거의 제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그런데 전하께서 승하하신 중전마마를 많이 그리워하시나 봅니다.

세자 이향: 두 분이 금슬이 좋기도 하셨지만 훈민정음 창제에 어마마마와 정의공주 등 저희 가족이 많이 참여하였기에 훈민정음 반포하시며 얼마나 어마마마를 그리워하셨는지 몰라요. 작년에는 어머니를 그리워하셔서 동생인 수양대군에게 석보상절을 만들라 명하셨지요.

△△△ 기자: 훈민정음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백성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세자 이향: 전하께서도 그것이 염려되신 나머지 창제하신 다음 해인 1444년에 삼강행실도를 훈민정음으로 언해하라고 명하셨고 반포하시기 1년 전인 1445년에는 직접 용비어천가를 만드셨지요. 작년에는 동생이 지은 석보상절을 보시고 월인천강지곡이라는 노래를 지으셨고 지금은 동국정운을 검토하고 계시지요.

△△△ 기자: 그러셨군요. 오늘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제 잘 지내시고요. 지금까지 창덕궁에서 △△△였습니다.